



## ▲내가 먼저

한·중·일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의 과학자가 땅 속 100m 지점에서 1천 년 전에 깔린 구리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1천 년 전에 전화망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에 일본 과학자가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 150m에서 2천 년 전에 깔린 광섬유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과학자는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이 결과로 봐서 일본 조상은 아날로그식 전화를 완성하기 1천 년 전에 이미 디지털 방식의 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려 중국 과학자가 일어나 말했다. “우리는 200m 지점까지 파보았지만 아무것

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한국과 일본의 과학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자 중국 과학자가 아무렇지 않는 듯 말을 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무선전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할아버지의 대답  
100세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

“할아버지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더 이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들라고 귀찮게 하지 않더라고.”

▲판사와 피고  
판사가 피고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면서 크게 꾋꿋이었다.

“피고 도대체 이곳에 온 게 몇 번째 입니까?

이 세상은 범죄로 살아갈 순 없는 겁니다!”

그러자 피고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판사님도 죄를 짓는 우리를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 ▲웃음소리

두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남자 바람둥이는 어떻게 웃는지 아니? 허허 허 (her her her) 하고 웃어.”

“그럼 여자 바람둥이는?”

“응. 히히히 (he he he) 하고 웃지.”

## ▲이혼의 이유

판사에 앞에 선 여자가 말했다.

“저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못살겠습니다.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됩니까?”

여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밤에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요.”

판사가 물었다.

“결혼하신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14년 됐습니다.”

판사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14년 동안 참다가 갑자기 못 참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자 여자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지난주 수리공이 우리 집에 다녀 갔는데 그 때까진 그 사실을 몰랐죠.”

##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물었다.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하는 거냐?”

남자가 대답했다.

“판단력이 흐려질 때 하는 것이지?”

친구가 되물었다.

“그럼 이혼은 언제 하는 거야?”

“음. 그건 인내력이 부족할 때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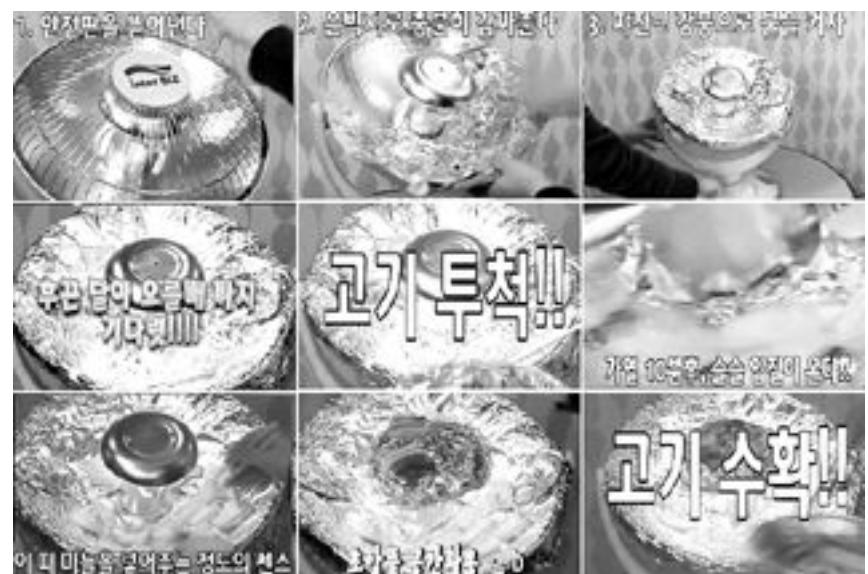
궁금한 표정으로 친구가 물었다.

“하나만 더 물어. 그러면 재혼은 언제 하는 거니?”

그러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말이지. 옛 기억이 희미해질 때 하는 거지.”

## 시끌벅적 e-스타



## 그냥 도전, 열풍기로 삼겹살 구워 봤어?

말이 안 되는 무모한 도전으로 시청자들의 뉘을 빠놓는 ‘무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본 판 ‘그냥 도전’이라는 동영상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등장한 ‘그냥 도전, 열풍기로 삼겹살 구워봤어?’라는 동영상이 그 주인공이다.

말 그대로 그냥 호기심에 한 번 도전해봤다는 열풍기로 고기 굽기’. 넘치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결과 탄생한 작품이다.

첫눈이 과하게 내린 턱에 참고 앉은 안에 숨어있던 열풍기도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열풍기가 새로운 변신을 했다. 자칫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으니 동영상 감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기 굽기의 첫 과제는 열풍기의 안전핀을 뜯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열풍기 안쪽을 은박지로

세심하게 덮어준다. 이 작업이 끝나고 불을 켜면 색다른 불관이 완성된다.

열풍기가 후끈 달아 오르면 고기 투적이 시작된다. 한접 한접 은박지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익기를 기다린다. 삼겹살과의 찰떡 궁합 마늘도 함께 올리는 것을 잊지 말자.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기름기가 꽂 빠진 노릇 노릇 맛있는 삼겹살 구이가 완성된다. 군침도는 완성작품, 과연 동영상은 본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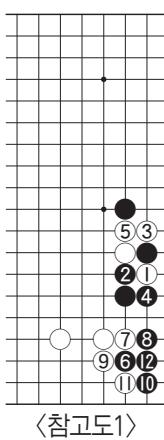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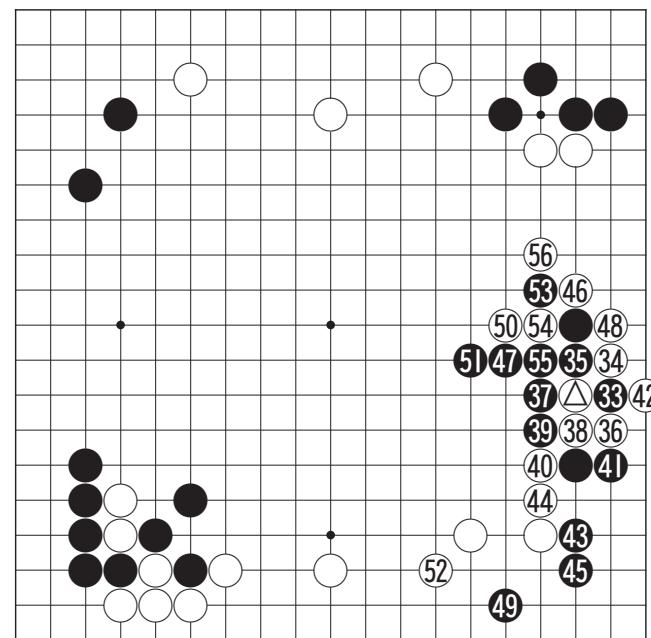
9만여 네티즌의 클릭 세례를 받은 이 동영상에는 “다 좋은데 기름은 어디로 빠지나…”, “수고 하셨습니다. 호기심,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기값보다 전깃세가 더 들것 같네요.”, “대단한 발상! 우리 회사에 입사시키고 싶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 코불임의 묘차

학생부 결승전 3보 (33~56)  
白 이대권 黑 양승하  
(인천광역시) (경기도)



&lt;참고도1&gt;

백 ②로 쳐들어 왔을 때 흑 33으로 아래에서 불인 수가 준비된 수로 상용수법이다. 이때 백 34로는 반대로 36쪽으로 젓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참고도 1’의 흑 12까지가 예상된다.

백 34로 젓혔으므로 흑 45까지는 필연의

수순인데 이대권군은 여기에서 백 46으로

코불이는 묘차를 터뜨린다. 양승하군은 장고 곁에 눈물을 머금고 흑 47로 후퇴하고 말



&lt;참고도2&gt;

있는데 이 수로 ‘참고도 2’의 흑 1로 막는 것은 백 2로 끊는 수가 성립한다. 흑은 3으로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백 4로 나간 다음 위쪽의 백 두점이 역할을 해 10까지 흑이 곤란하다.

백 48로 넘어서는 백이 성공을 거둔 장면이며 56으로 젓혀

이대권군이 기세를 올

리고 있는 장면이다.

<오큐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ISAK 웨스틴 리조트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0일(음 10월 23일 甲子)

**子** 36년생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기분을 담할 수 있다. 48년생 가도 양정에 힘을 쓰라. 60년생 가득 찬 창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72년생 간장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과 함께 84년생 개인의 절약은 국가 경제로 통한다. 행운의 숫자 : 15, 45

**丑** 37년생 계획한 모든 일에 잘 이루어지리라. 49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간다. 61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 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하라. 73년생 마음먹기에 달렸라. 85년생 모든 일에 불편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 20, 45

**寅** 3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결정 난다. 50년생 밤풀립은 남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62년생 좋은 땀이 멎기도록 좋다. 74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21, 16

**卯** 39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자세하게 검토해야 하리라. 51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63년생 수하인과의 동업은 절대 금하라. 75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05, 31

**辰** 40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라. 52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64년생 정신적 부평이 발생할 수 있고 부부갈등이 연발할 수 있다. 76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행운의 숫자 : 08, 25

**巳** 41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53년생 친인척의 행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65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77년생 지속적인 안정이고 재복으로 가도 안정을 찾는다. 행운의 숫자 : 17, 37

**午** 42년생 가정과 직장사이에 불편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라. 54년생 고개를 숙여서 풍을 한번 살펴보라. 66년생 고육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78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7, 34

**未** 43년생 말다툼이 솔직로 비화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55년생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쌓으라. 67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 생긴다. 79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20, 40

**申** 44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하면 미움은 없으리라. 56년생 아득한 보금자리나 부평한 사이가 같다. 68년생 애인이 불안하니 용기와 힘으로 변하라. 80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정이 솟는다. 행운의 숫자 : 09, 26

**酉** 45년생 예일이 나를 괴롭거나 큰일은 아니다. 57년생 외부의 일은 가정에까지 소란으로 변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69년생 외부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81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4, 16

**戌** 46년생 적장을 포로로 잡은 격이니 큰 상이 있을 수 있다. 58년생 제사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70년생 차조심 사람조심의 지혜를 갖으라. 82년생 착실히 전진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38

**亥** 47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안해지리라. 59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71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 83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행운의 숫자 : 03, 29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뱀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lt;1193&gt;

That's great!

대단하구나!

A : I'm thinking about applying to graduate school.

B : What is your GPA?

A : 3.78

B : That's great. You shouldn't have any trouble getting in.

A : 난 대학원에 지원할까 생각 중이야.

B : 광점이 열만데?

A : 3.78이야.

B : 대단하구나! 입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겠구나!

\* think about = ~할까 생각중이다.

\* GPA = 평균학점 (=grade point average.)

\* get in ~ = ~에 들어가다

\* 앞으로 계획은?

= What is your plan for the future?

## 오하요우 니혼고 &lt;1193&gt;

うまい人達(ひとたち)がたくさんいたからね.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A :今回(こんかい)のスピチコンテスト、代表(だいひょう)に選(えら)ばれなくて残念(ざんねん)だったね。

B :うん、うまい人達(ひとたち)がたくさんいたからね。

A :君(きみ)もとでもうまかったよ、もう一息(ひといき)だったね

A : 이번 스피치 대회에 대표로 선발되지 않아 유감이었어.

B : 응,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A : 너도 잘 했어. 간발의 차이였어.

今回